

## 아펜젤러 – 정동제일교회 장학금

정동제일교회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감리교회로, CST와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일본에 본부를 둔 선교사 로버트 맥클레이(1824-1907)는 한국에서의 기독교 선교를 가능하게 한 인물로,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인 고종으로부터 선교 활동을 위한 윤허를 받았다. 그로부터 1년 후 선교사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와 메리 플래처 벤튼 스크랜턴이 한국에 도착했다. 선교사 로버트 맥클레이의 형인 찰스 맥클레이가 메클레이 신학교를 설립했고, 일본에서의 선교 활동을 마친 후 귀국한 로버트 새뮤얼 맥클레이는 메클레이 신학교의 학장이 되었다.

메클레이 신학교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종교학과가 되었다가, 1956년 USC가 교단에서 탈퇴를 하자, 종교학과 교수들이 클레어몬트에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한국의 기독교 선교와 깊은 연관이 있는 CST는 클레어몬트로 이전한 이후 많은 한국 유학생들을 유치하였으며, 한국 감리교 교단과도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 정동제일교회는 몇 년 전 '아펜젤러-정동제일교회 장학금'을 제정하고, 매년 CST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2024년 10월 20일 정동제일교회 예배, 후원 감사패 전달)

